

How about you?

(Jeremiah 1:4-6)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and before you were born I consecrated you;
I have appoint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s."
Then I said, "Alsa, Lord God! Behold, I do not know how to speak, because I am a youth"*

If God came to you, right now, and spoke wouldn't you be excited? Jeremiah had this experience. He was a wonderful prophet who God used to communicate His words to His people. For more than 40 years he faithfully proclaimed God's judgment on apostate Judah, all the while enduring opposition, beatings, and imprisonment. He wrote the important 52 chapters of Jeremiah and the 5 chapters of Lamentations. Just think how many millions of people receive God's message through his writing. He was a true servant of God. Through him many Christians hear God's merciful voice. God used Jeremiah. How about you?

God has a plan for every single life. Do you believe it? His plan for Jeremiah's life was conceived before Jeremiah even saw the light of day. He has a plan for your life too. He has one for mine. If you really know God has a plan for you, aren't you going to be excited,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I'm asking you, right now in the middle of this worship service, do you have peace? Are you comfortable? Or are you right now in your Christian faith depressed or suffering? What kind of spiritual life are you living? Do you really comprehend whether or not you are in God's plan? How do you know if you're in God's plan? Honestly, I cannot give you that answer. You have to decide that by yourself. I believe God will help you if you open your heart to Him. If you truly follow Jesus Christ, I know that you have your main objective, your vision, centered on it. What is it? God's kingdom. Do you agree with me? Or is your number one priority self, money, and power? Are these things more important than God's kingdom in your life? I hope that the main objective in your life is first, and foremost, His kingdom, and that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Jesus taught us the Lord's Pray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Do you believe that's the will of God, that His kingdom come? If our aim is to serve the kingdom of God, then we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Service. Serving the Lord God should be your highest motive. If you really understand His kingdom, then you really desire to serve Him first. Money should not be your utmost concern. Money should not be the reason or the meaning of your success. There is another standard, a very high and great standard, that should catch your vision and be your goal. Think for a moment what Jesus said,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Lk. 12:15). To each and every believer there is a great plan and a great responsibility for their life, their present life. Let's invest our time, efforts, and resources in that plan, the ultimate producer of everything good and eternal. God wants you to join His plan. It's a glorious plan. Can anything else be more important than God's plan?

Ministry. How great is the need for ministry? Do you want to fill up on real service that will yield a rich reward? Then give yourself preparation to this high calling. Remember that the

ministry is made up of common and ordinary men and women, like you and me. Whoever responds to God's calling should bear fruit,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hat you would go and bear fruit, and that your fruit would remain" (Jn. 15:16). Amen. Paul reminds us,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Eph. 2:10). You can praise God for His favor, "How blessed is the one whom You choose, and bring near to You to dwell in Your courts. We will be satisfied with the goodness of Your house, Your holy temple" (Ps. 65:4). Are you listening to God's voice? Then, respond and follow Him.

Time. Remember, time is short. It calls us to action. Time can be your tool or you can be its slave. Seriously, pray to the Lord God and offer your life to Him. Time is flying. This earthly life is so short, it's only a little time to be used for His plan. The time you have left is precious, most precious for His kingdom.

Mission Field. Where are you to work? God gives each person the right place to do His will. I don't know that place, but He does. Perhaps it's in a foreign country or right here in our church? Are you looking at the world and seeing that millions of people don't know Jesus Christ. Millions of people are dying without Jesus. Does your heart really beat or your eyes truly cry for the lost souls in Africa, Indonesia, Sri Lanka, Russia, United States, South Korea...? If Jesus calls you, are you ready to say, "Here I am"? Do you remember Peter's confession to Jesus that he gave up all his things? Do you know what Jesus said?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arms for My name's sake, will receive many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Mt. 19:29). Amen.

Life. Your life is only once. Very soon it will pass from here to there. If you live your life for Jesus Christ, you will have eternal life. If you live your life for self, you will have eternal damnation. Invest your life well. Invest it in service for the Lord. Jesus asks you to deny yourself, take-up your cross, and follow Him. Where? To the Father's kingdom. Amen. "He who goes to an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again with a shout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Ps. 126:6). All the time, effort, and resources you spend on God's kingdom will come to fruition like a harvest. Indeed, when you deny yourself you will weep and when you take-up your cross you will suffer, but you will have the best result.

It's the season for harvesting. All of nature blossoms around us with ripe fruit and vegetation. My dear friend, do you have spiritual fruits? That's God's plan. Please respond. If you understand Jesus then you understand His will and way. I'm pretty sure you will be very happy because His peace and comfort come from heaven. Just prepare for His plan. 

네가 어떠하뇨?

(렘 1:4~6)



김성완 목사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거로
네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진정한 일꾼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와 말을 거신다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배교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이상 신실하게 선포하면서, 온갖 반대와 구타와 옥고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는 정말 귀중한 예레미야서 52장과 예가 5장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생명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침체되어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저렇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적 역시 분명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혹은 돈, 권력이 여러분의 제일 우선 순위는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니까?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순위로 따라오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은 그것이 아말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그분의 뜻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의 요소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의 동기

섬김,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열망하게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선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이유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고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냐”(눅 12:15). 각각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과 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영원한 모든 것을 생산하시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른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역의 열매

사역, 사역의 중요성이야말로 매우 큼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상급이 주어질 참된 섬김으로 가득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귀한 소명을 받들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로 사역을 이루

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아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여러분은 하나님 은총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시 65:4).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응답하시고 따르십시오.

시간의 주인

시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짧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행동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을 바치십시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께 남겨진 시간은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터득할 귀중한 시간입니다.

일할 곳

선교지, 여러분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이룰 임무를 주십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아마 외국일 수도 있고 이곳 우리 교회 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러시아, 미국, 한국 등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예수께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아멘.

수고와 영원한 기쁨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투자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데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따라갑니까. 아멘. “올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창병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 126:6).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모든 자원은 추수 때에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 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최고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지금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든 자연이, 모든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그분의 뜻과 길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은,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품고 귀국하며 그들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교제하는 '후속사역'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 교회에 선교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 다른 성도들에게 선교지를 품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로 3차 단기선교에 참가하도록 '동원사역'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원사역'이란 성도들이 더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일은, 선교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 곧 이방인의 구원을 고백함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성도들이 선교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보고를 들은 교회는 바울과 함께 유대와 실라를 다시 선교지로 파송했다(행 15:22~32).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동안 기도로 동역하던 이들 교회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 직접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원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출 3:8)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잊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이 열 정탐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살기엔 땅이요 거기서 본 토목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든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31~33).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말씀을 외치하지 않은 결과였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방에 빠뜨리게도 결국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의 사역보고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단기선교를 다녀온 중원의 성도들이

2002 후원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 ⑦

동원(動員)사역

여! 우리가 밭은 땅들에 대해 성도들에게 무엇이든 소개했는가? 하나님은 그곳을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앞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평을 하지는 않았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행 1:8)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가 악평했던 아름다운 신(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벌써 잊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사역을 했던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도 편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아름답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역사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성도들에게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도로 동역하도록 동원사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이 자신이 갔던 선교지와 만났던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속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직접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함으로 동원사역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며 다른 성도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선교는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 진 사명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개는 다른 성도들이 더 구체적으로 단기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널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실제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초는 그들에게서 떼났고 여호와와 우리의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민 14:6~9).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김 윤 환 (중동1부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3년 전 중동1부 생생님 몇 가정이 호반 함께 해외선교를 가자고 했는데 2002년도 교회 선교 방침을 통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중동1부 단기 선교팀에 동참하였고 CMTC 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목격지가 베트남, 우라리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으로 바뀌게 되어 언어훈련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감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스리랑카로 가는 긴 탑승시간과 대기 시간 비행도 선교의 열정이 이어져 만나는 사람 모두가 전도의 대상이었다. 1집사님이 비행기에서 전도한 니르타 형제는 8월 6일 선교사역을 마치고 카투나야 공항으로 돌아가는 우리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고 우리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가정이 우리를 영접하게도 작정하여 성경책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니르타 형제가 운명하는 보석 가공 공장에서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인도해 주심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역지 알 파라에서는 직업학교와 초등학교를 찾아가 전도하였는데 목사의 말씀을 한 점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얀 백지 위에 물감이 스며들 듯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또한 그리지 않고있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기도회를 하고 누르가 문을 크게 두드려 '무슬림이 많은 곳인데 우리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찾아왔나' 생각하고 긴장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 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현지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를 만난 어떤 사람으로 부터 한국에서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다음 날 회회를 방문해 줄 것과 기도회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시고 돌아가셨다. 험난한 산길기 때문에 열악한 교통과 내전 등으로 한반도 선교사가 다너지지 않는 땅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예비



해 두신 것이다. 이튿날 우리는 회회를 찾았고 그곳 형제, 자매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

함반도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선교를 감시하는 경찰에게도, 우리의 선교사역을 해방하는 모슬렘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셨고 어디든지 가게 하셨다. 비스터미움, 시장, 군인초소, 주님을 앞세우려는 두려울 게 없었다. K부감 집사님은 선교팀 모두가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한마디 불평없이 맘을 뻗뻗하며 선교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감격해 했다. '주님, 주님께서도 기쁘시지요?' 주님의 일에 마른 나뭇가지보다 못한 쓸모 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동이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단기선교였다. 주님! 스리랑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슴에 선교의 불길기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무거운 사명

이 석 종 (고등부 교사)



소명의식으로 시민권 고등부 교사는 어느덧 새 생활에서 그 비중이 커진 상태다. 처음에는 분반중 40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고민이 앞섰다. 대 눈들 동그레게 따라오는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사소한 실수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은 아닌지, 성공공부도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레짐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들은 성경지식으로 겉을 잘 못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생생한 것이라 부른다.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지난 날 내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내게는 항상 신조를 지으며 단정히 모습으로 비칠지니 뒤로는 게 고민하셨을 것이다. 고교의 초점을 적절한 일차원으로 이어졌고 난 그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 내가 고민할 차례다. 보다 주님의 뜻대로 전달하려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게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저야하는 십자가인걸요

박철홍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십자가를 진다’라 하는 표현은 그가 그리스도처럼 아가기를 띠어서 민중적으로
사용되는 관용구가 된 것이다. ‘힘드시죠?’라고 하는 질문에, 흔히 “제가 저야하
는 십자가를 진걸요?”라 대답한다. 혹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 화자를 등장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힘들지만 내가 다른 사람
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함’을 의미하고 있다. 즉, ‘자기희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 희생의 상상은 자발적인 것과 불의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신 하나님의 공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희생'과 아울러 '기꺼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결사침의의 사할됨이 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저야하는 십자가"라는 겸손한 마음에서 '어쩔수 없음'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한숨이 섞여서 들리는 것은 어찌 일인가. 또한 때로는 겸손이 지나쳐 교만함으로 들리고도 한다.

이제 논의는 겸손과 교만의 분기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축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이라는 것이다. 제자도를 받습하
 기면서 예수님은 전제조건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자가 된
 이후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좇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는 이 말씀에 '날마다'를 추가하여 강조하고 있다(눅 9:23).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전제조건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대입시험을 보듯이 한 번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저하는 습কা”, “내가 습কা를 저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인타까
움과 고집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앞선 말을 “저하”를 부인하고 있어 생략해 볼 수
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 습카를 저하는 것은 고집으로 이어진다. 아직 ‘내가’라
고 하는 행위의 주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습카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행동은 하
되 행위의 주체가 사라져야 하는 습카 않은 일이다. 누집은 분명 ‘저하’를 말할
수 있다. 습카를 저하는 행위의 주체가 그 습카가 가진 행위의 명칭화해 하였다
는 것을 깊이 목격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 그 이상의 의미가 습카에 담겼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박현민 (고등부 인도 단기선교팀)

어느 날 거지각에서 선생님 세 분이 표를 예매하는 동안 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댄발의 거지들이 구걸을 해왔다. 대부분 어린 아이였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작은 몸으로 자기만 한 아이를 안고 구걸을 하는 아이도 있었다. 주위에 거지들이 많아 선토크 돈을 줄 수 없어서 속상했다. 내미는 강토 측에는 어떤 우상 신의 그림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더 속상했다.

표를 예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교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전도했다. 나누어주는 전도지에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우리가 힌디어를 잘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준비한 힌디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숙소에 돌아와 전도지를 더 준비해 아들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다시 시도했다. 어떤 책과 있어 자리를 잡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 하나 제대로 보여 주었다. 아순찬과 통제가 힘든 가운데도 대원들은 목걸이로 만든 헌디에 4영리로 전도를 힘썼다. 나는 영어를 쓰는 형제를 만나 'Bridge to Life'를 가지고 전도를 시도했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길 것을 강조했다. 대원 몇 명은 풍선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일들의 관심은 복음 이 아닌 풍선과 전도지에만 쏠렸다.

갑작스레 소리가 지가라고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다한 현진들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은 계속 웃고 아이들에게 인사하길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실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순간 짜증이 일기도 했다. 나의 부족한 믿을 때문에 당대히 전하지 못해 나의 부족함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래서 순수하고 소박한 이곳의 아이들에게 내가 쿼터한 절도지 한 장이 하나니 안에서 생뿔뿔이 나는 땀속으로 쓰이길 믿고 기대한다.

외국인을 보고 “Hi!”라고 인사하며 씩씩거리며 키득거리는 순수한 아이들인 만큼 복음도 순수하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마귀를 쫓으셨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또 담대히 증거해야 하겠다. 또 하나님 안에서 언어의 벽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신 · 의 · 조 · 신 · 우 · 가 · 나

12.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가와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이 날 것을 예언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강자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놀이로 이 예언은 700년 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라 함이라'(마1:23)

예수님은 바로 이사를 하신 예한 임마누엘은 의식이나 형식이 없다. 천사가 오셨는데 나타
나 그들을 경령으로 복을 보내고, 그가 이 이름의 뜻대로 허락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때문에이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바에 따라(요
10:33)라고 주장하셨으며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우리들이 증언하고 있다(행 1:8, 9:5, 히
1:8, 1바 1:7).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가족적인 하나님으로서 가족처럼 우리를 돌
러보고 있어 아버지이지만 그가 우리의 길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
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가 사탄을 당할 때에 우리의 할계 제시(행 18:10), 우리가 병사할
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골 4:16, 17), 우리가 슬퍼할 때에 기뻐할 때도 함께 계신다. 또한 그가 우
리의 할계 제시 신자는 한결같이 잊지 않기로 열망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죄인이라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모든 것을 그에게 드렸을 때 가능한 일이다. 주께 드릴 수 없는 나의 것을 하나님과 소유하고 있는 한 주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리고자 하기 십사까지 자기와 가족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마 19:3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드리자. 또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고난 중 이든, 기쁨 안이든, 이생이든, 천국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역에배달당

평안케 하는 분

사당4구역
구역장 김선자 집사



성경공부의 제목이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인데 구역원들이 나눈 말씀은 오히려 '평안케 하는 분'에 대해서였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그분은 평안케 하시는 분이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한 아무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으며, 실사 지금 당장 해롭게 하는 듯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므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아름은 이미 수많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앞으로의 축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무너졌다. 아람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물질과 자식들이었다. 물질 때문에 약속 받은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현실을 한탄하는 말을 한다. 구역원들은 자신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도 물질과 자식들임을 고백했다. 물질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을 잃은 듯 좌절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의 속상함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마저 잊게 만든다.

성도의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모르면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한 성도의 말에 이어 구역원들은 각각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동기를 잃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항상 부족하며 '나를 해롭게 한다'고 말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영적인 시각이 없어지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며, 원망이 생기고, 삶을 비판하며,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며, 낙망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영적으로 죽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구역장은 혹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 한다고 말했다.

아름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아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아니 아람에게 하신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롬 8장)과 그로 인해 생기는 천국의 소망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곧 없어지면 더욱 불안하게 한다. 일이 평안하게 하는가? 역시 아니다. 충족감을 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고통을 더 많이 준다. 가족이 평안케 하는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온갖 불안과 불화의 원인이 되곤 한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완전히 평안하게 못한다. 우리를 완전히 평안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한다'고 말한다. 오직 주만 의지하자. 그만이 우리를 완전히 평안하게 하신다.

(권요섭 기자)

540장 "이 세상 지나가고"

다
음
주
일
찬
송

앤 로스 카즌(Anne R. Cousin, 1824-1906) 여사의 대표적 찬송이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미국교도 목사인 사무엘 루터포드(S. Rutherford)박사의 순교사를 연구하다가 그의 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유수같은 당신의 모래시계의 짧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때는 제때에 주님을 찾으시오.'라고 한 말에서 감동을 받아 이 찬송사를 썼다. 곡은 프랑스의 우르양이 1834년에 작곡한 것인데 람볼트가 1867년에 편곡하였으며, 곡조의 이름도 루터포드라고 명명하였다.

- 1절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와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둔 밤이 가고 새 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함 밝게 빛난다
- 2절 사랑의 구주 예수 내 생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생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 3절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치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와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 4절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영광 버리고 내 갈 길 힘입어나 쉬잡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 처음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영광 버리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부르는 찬송이다. 그러나 매 프레이즈(악구)마다 있는 불절(참4분음표)은 한번씩 부르듯이 힘주어서 불러야 한다.

(전영위供稿)

양요실

6교구 오귀한 집사(남 72세) 임파선암으로 3주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통증이 완화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윤여준 성도(남 28세) 뇌혈종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 내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심상국 성도(남 72세)위암으로 항암치료 중인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지 않으며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교구 류동호(남16세)사랑부 형제인데 심한 경기로 의식을 잃어 보름이 지나도록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의식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안경호, 강효정' 예비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경호 형제는 2남 1녀 중 장남이며 가족 중 아버지님과 여동생이 기독교인입니다. 경호 형제는 5년전 대학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다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신앙의 어떤 힘이 있음을 느꼈고, 그의 좋은 성품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 호감이 생겼습니다. 중학교교회는 강효정 자매를 만나 전도받고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글라이더와 낚시 즐기기를 포기했지만, 주일에 자매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무엇보다 의지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아니면 풀어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시간에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요즈음 심령이 시원하도록 회개하고 싶습니다.

(한숙경 통신원)

민음의 학교에서

삼손의 최후

삼손은 아내를 고를 때 부모님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삼손이 덩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삿 14:1),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가서 보지 말아야 할 이방여인을 볼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결국 이방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결혼은 일주일 만에 파탄이 났고, 그후 삼손은 블레셋의 기생과 어울립니다(삿 16:1).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다시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삿 16:4).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아줍니다. 처음부터 들릴라의 질문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 삼손은, 끈질긴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잠 5:20-23) 극심한 갈등과 고민에 빠집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삿 16:16).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삿 16:17).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미쳐서 머리를 깎고 눈이 뽕혀 땃들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려난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삿 16:22). 삼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뜨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칼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삼손을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삼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삿 13:7).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여 자신의 신 단군에게 제사를 드려 줄 거위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합니다(삿 16:23-27). 삼손은 두

팔로 기둥을 하나씩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뵈면 권수를 단번에 갇게 하옵소서"(삿 16:28). 삼손의 기도는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심니다. 삼손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버린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원수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꺾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도라..."(삿 16:29-30). 삼손은 최후의 장렬한 죽음으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였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 속박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보고 듣고 취하며 사는 우리들과 삼손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요? 죄 많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권한임 기자)

진리의 생

요한복음(John)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요한'! 그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삼손들을 거느릴 만큼 재력 부자였고(막 1:20), 어머니는 한 때 자식의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마 20:21). 하지만 요한은 예수의 부르심 한마디에 아버지와 모든 배와 그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며, 고기를 굶으며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막 1:19-20). 그는 세상의 권세를 하지 않고, 생명의 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계 3:5, 13:8, 17:8, 20:12, 15, 21:27). 야고보와 동생이며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던 사도 요한! 그는 성격 때문에 예수로부터 '우뢰의 아들'(Sons of Thunder)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막 3:17).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별명인 '우뢰'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뢰'라는 단어를 심판의 날에 들리게 될 두렵고 떨리는 하늘의 음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계 6:1, 10:3, 4).

젊은 시절에 예수를 만나서 한 평생 그를 따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요한! 그는 열성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눅 9:51),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별명처럼 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눅 9: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요한 사도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가까이 두셨습니다(마 17:1, 26:37, 막 5:37).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행 3:1-11), 마침내 '요한복음'과 '요한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늘어서 '맛소심'에 유배되는 축복한 고생과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도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의인이었고, 세상에서는 가장 외로웠으나 예수와 가장 친밀했으며, 고독했으나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 사랑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요한1서). 그리고 한 치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보았고, 생전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듯이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주 목사(출판국 지도)

[민음의 창]

거룩한 침묵

시려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장엄함 앞에 인간의 말처럼 무가치한 것도 없습니다. 영감의 세월에 통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생명터 앞에 인간처럼 초라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될 가치조차 없음을 쉽사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도 이러한단,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금강합니다.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습니다. "제 삼 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 중 모든 사람이 아 떨더라"(출 19:16).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심히 떨립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數) 가치조차 없는 존재(사2:22)임을 몸소 느낍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한 가지, 침묵뿐입니다.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입니다. "내 백성이 들을지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시 50:7).

이처럼 신앙의 진정한 증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말이 무성한 곳도 드물지만. 한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앞에서 고개숙여 숙고할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침묵이 신앙의 미덕임을 잊은 듯 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특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침묵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줄은 길입니다. 어떻게든 자아를 드러내려는 PR의 시대에 교회는 이러한 침묵하는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말보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진실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며 궁극적으로 보려 노력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룩한 침묵, 곧 신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각고한 실수를 마치 아르메타스의 발견이나 한 것처럼 행하여 사방에 공포하여야만 기어코 직성이 풀리는 이들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행위하신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존귀에 처한 개만지 못한 이들이입니다(시 49:20 참조).

박 경복 (외선부 교사)

※ 출회금액이 하 기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보다 20%를 새 기종 등록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